

보도시점 2026. 9. 18.(금)
포럼 시작(14:00) 이후

배포 2026. 9. 18.(금)

지역 국립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 성과 공유하고,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2단계 사업 준비한다

-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성과확산 포럼 개최(9.18.) -
- 연구 인프라·전문인력·특화 R&D 패키지 지원 통한 초기 성과 공유 -
- 2기에는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병 협력 연구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 이하 진흥원)은 9월 18일(금)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하여 1기 사업('25년~'27년)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2028년부터 추진을 검토 중인 2기 사업 기획방향을 논의하였다.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과 전문 연구지원인력을 확충하고, 병원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여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와 임상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의료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국립대학병원, 진료뿐 아니라 교육·연구까지 종합적으로 육성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임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임상·교육·연구·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간 연구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R&D와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체

국립대학병원 간 통합 임상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에서도 1기 사업을 확대하여 9개 전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인프라·인력·R&D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 연구장비·인력·R&D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연구 기반 구축 >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국립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의 첫 단계인 1기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공유하였다.

1기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중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을 선정하여 약 50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연구에 필요한 고가 장비와 전문 연구지원인력이 부족해 교수·전문의가 좋은 연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실제 연구로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기 사업에서는 ①코어퍼실리티*(Core Facility) 등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 ②병원별 특화·중점연구 및 지역 공동연구 등 R&D 지원, ③장비전담 전문인력과 리서치클리닉 등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하였다.

* 개별 연구자가 갖추기 어려운 고가 연구장비와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시설

이를 통해 사업 착수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연구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를 기반으로 의료인력의 연구 진입장벽을 낮추고, 임상현장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와 지역 현안 해결로 연결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전체 빅데이터 코어퍼실리티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RNA-seq, 단일세포 RNA 분석(scRNA-seq), 전장엑솜분석(WES) 등 고난도 분석을 지원하여 임상 의사의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유세포·단백체 분석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임상데이터 중심의 후향적 연구를 환자 검체에 기반한 질환기전 규명과 바이오마커* 발굴 등 연구 결과를 실제 환자 치료로 연계하는 중개연구로 확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 질병의 진단·진행·예측 또는 치료반응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생물학적 지표

연구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임상 의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리서치클리닉도 성과를 보였다. 임상 의사가 진료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와 아이디어를

연구 가능한 질문으로 구체화하고 연구설계와 전향적 코호트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 연구 시작 시점에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관심 결과 발생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

** (연구명) 고위험 산모의 분만 후 회복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전향적 레지스트리 구축 및 멀티모달 회복 표현형 기반 맞춤형 관리전략 개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연구도 실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제주의 임상자료와 기후·지역적 특성을 연계한 감염병 발생위험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였다. 해당 정보는 제주지방기상청과 제주관광공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등 연구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 (애플리케이션) 제주형 SFTS 조기경보시스템

이처럼 1기 사업은 부족한 연구장비를 단순히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인프라를 운영하는 전문 연구지원인력과 병원별 특화 R&D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스스로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 2기에는 9개 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산·학·연·병 연구 거점으로 육성 >

이날 포럼에서는 1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마련 중인 「2기 지역 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기획안도 공유하였다.

1기 사업이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5개 병원을 지원했다면, 2기 사업에서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9개 전체 지역 국립대학병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각 병원의 연구역량 수준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연구지원 시설(코어랩) 구축, 전문 연구지원인력 확충 및 임상의 연구지원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연구활동도 개인연구에서 기관 중점연구, 지역 내 공동연구, 지역 간 협력연구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별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 대학·기업·연구기관·병원을 연결하는 산·학·연·병 연구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별 진료·연구 강점과 지역의 질환 특성, 임상자원 등을 고려한 기관별 중점 연구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R&D 지원도 기획하고 있다. 현재 기획안에는 정밀의료, 오가노이드*, 노화, 멀티오믹스**, AI 등 각 병원의 특성과 연구역량을 반영한 중점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재조합해 만든 인체 장기 유사체

**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 다양한 생물학적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과 작용 기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접근법

아울러 병원 내 연구자원과 새롭게 구축하는 장비·전문인력을 코어랩으로 연계하고, 이를 병원 내부뿐 아니라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함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수요가 연구로 이어지고, 그 연구성과가 다시 지역의 진료현장과 산업으로 환류되는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종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에서도 우수한 의료인력이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라며, “1기 사업을 통해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R&D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9개 전체 지역 국립대학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 바이오·AI 등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병원을 연결하는 연구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연구역량 강화가 우수인력 확보와 첨단의료 역량 강화, 궁극적으로 지역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영훈 기획이사는 “1기 사업을 통해 마련된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지역 연구생태계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진흥원은 현장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의 특성과 연구현장의 수요를 2기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이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성과확산 포럼 개요
2. 성과확산 포럼 포스터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044-202-25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044-202-2501)
			주무관	전현정 (044-202-2502)
담당 부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R&D사업기획단	책임자	단장	김기태 (043-713-8602)
		담당자	팀장	이가은 (043-713-8780)
			연구원	임유진 (043-713-8783)



붙임 1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성과확산 포럼 개요

□ 개요

- (목적)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사업 1기 사업 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2기 사업 기획(안) 현장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4:00~18:00
- (장소)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 3층 한양 1·2
- (참석자) 보건복지부, 지역 국립대병원 9개소(의생명연구원장 및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60명 내외

□ 주요내용

- (강연) 지역의료 R&D 중요성 및 혁신전략, 해외 병원 코어퍼실리티 운영 사례
- (성과교류) 1기 사업의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
 - * (1기 참여기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 (기획방향) 2기 사업 기획(안) 공유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
- (토의주제) 1기 사업 성과와 한계, 2기 사업 지원방향 및 지역 국립대 병원 간 협력연계 등

□ 세부일정(안)

일 정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
14:00~14:10 ('10)	개회사 및 축사	진흥원, 복지부
14:10~14:30 ('20)	지역의료 R&D의 중요성 및 혁신전략	김희년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30~15:30 ('60)	1기 사업 추진성과 공유(각 12분, 5개 기관)	1기 참여기관 5개소
15:30~15:40 ('10)	휴식	
15:40~16:00 ('20)	해외 병원 코어퍼실리티 우수 운영 사례	정현준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생명의학연구원)
16:00~16:20 ('20)	2기 사업 기획(안) 발표	진흥원
16:20~17:10 ('50)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패널 7인 [좌장: 서울대 전주홍 교수]
17:10~18:00 ('50)	폐회 등 네트워킹	-

1기 성과 공유와 2기 발전방향 모색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R&D사업 성과확산 포럼

지역 국립대병원
9개소
협력 네트워크

2026. 9.18.(금) 14:00~18:00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 한양1·2 (3F)

세부 프로그램 PROGRAM

13:30~14:00 (30)	등록	
14:00~14:10 (10)	개회식	
	· 개회사 · 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영훈 기획이사 보건복지부 이종규 공공의료정책관
14:10~14:30 (20)	[강연 I] 지역의료 R&D의 중요성 및 혁신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년 부연구위원	
14:30~15:30 (60)	[성과교류] 1기 성과 발표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15:30~15:40 (10)	휴식	
15:40~16:00 (20)	[강연 II] 해외 병원 코어퍼실리티 우수 운영 사례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정현준 교수	
16:00~16:20 (20)	[기획] 2기 기획안 발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R&D사업기획단장	
16:20~17:10 (50)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 1기 사업 성과와 한계 · 2기 사업 지원방향 · 지역 국립대병원 간 협력연계 [좌장] 서울대학교 전주홍 교수	[패널] 보건복지부 김도균 국립대병원정책과장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김상엽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웅규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년 부연구위원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정현준 교수 1기 강원대병원 홍석호 의생명연구원장 2기 전북대병원 오선영 의생명연구원장
	폐회 및 네트워킹	
17:10~18:00 (50)		



보건복지부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